

## Awana 칼럼

# 하나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기라.

미국에서 4주간 영어 캠프를 진행하고 귀국한 직후, 나는 컴퍼션과 함께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기회를 얻었다. 미국에서 누렸던 풍요로운 경험과 달리, 필리핀에서는 내내 마음이 많이 어려웠다.

필리핀에서 우리가 방문한 가정마다 궁핍한 살림에 주거 환경 또한 열악했기 때문이다. 쓰레기장에서 폐품을 주우면서 쓰레기장과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지만 쓰레기 침전수로 수질이 나쁜 물을 마셔야 하는 아이들, 하수가 모여 쾌적한 악취를 진동하는 곳에 겨우 자리를 잡고 사는 가족, 교회에서 나누어준 도시락을 동생들과 함께 먹으려고 배고픔을 참고 집까지 가져온 아이, 자녀의 건강과 교육을 걱정하며 울먹이는 엄마, 어려서부터 아빠가 병환으로 생활이 어려웠기에 엄마를 도와 삽빨래를 해야 하는 아이 등 이러한 풍경은 나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나는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눈빛이 얼마나 맑게 빛나던지, 그 아이들의 눈빛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열정 있게 찬양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답으로 주는 그 아이들의 영성을 잊을 수가 없다.

한국어와나 대표  
이종국 목사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복음과 빵을 함께 나누며 열심히 사역하는 현지인 목사님, 한 꺼풀만 벗기면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려운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소망 있는 젊은이들. 나는 그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이유에 집착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하나님과 함께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나갈 것인지,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과제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다. 그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왜 그러나”고 묻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로 결단하면, 비로소 우리는 이 어려움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기다리신다. 나는 개인적으로 컴퍼션의 비전 트립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다. 어와나는 자신의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민감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다. 이 일에 당신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동역을 촉구한다.

“내 영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시편 42:11).





## Put Your Hope in God

Right after turning back from Awana English Camp in Orlando, USA, I had opportunity to join Vision Trip to Philippines with Compassion. (Compassion is known for the international Christian relief organization.) It was totally different experience from USA which was comfortable.

My mind was sometime in trouble because all the people we visited were very poor and their life was under I had ever imagined. I met people who were collecting waste articles among the rubbish mountain. I met children who drank tainted water from the pump besides the rubbish mountain. And I met the family who had to live in polluted air from the garbage.

I even saw a child who had received free lunch from the church but kept it to share with his brothers and sisters. And I saw a mother who was crying for their children because she had no food to feed. I also saw a girl who had a father in long-term illness which made her washing clothes for getting daily bread. These circumstances made me speechless. I lost my words to say because of their hopeless situation.

But there are still hopes I could find. First of all, I remember the eyes of children. The every child I met had clear and bright eyes. And I cannot forget the teenagers I met in the churches.

They were playing the musical instruments and singing gospel songs and they answered "Be the glory to the Lord!" to all the complimentary remarks. There was a pastor who was trying to help Christian family to find the living water in the Lord and the way of daily life. There were youth who keep going forward with faith even though they all had miserable past. I look through them and hear the voice of the Lord.

Now I know that we have my part and God has His part. It is futile in asking "why" to the difficulties in our lives. Our mission is to ask "how" to face these difficulties with the wisdom from the above. We all face our own difficulties. We need to face our difficulties with the hope that God can and will help us in always which will make us to praise Him with all our heart, mind and soul.

Let us look at the world through His sight. Let us follow Him who is already in the field and waiting us. I received great challenge from this vision trip. And I would like to devote my life again to raise our next generation with this same vision. Thank you and invite you again to join this ministry with your prayer and love support!

Billy Lee  
National Director  
Awana Korea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so disturbed within me? Put your hope in God, for I will yet praise him, my Savior and my God." (Psalms 42:11)*

